

석사학위청구전

팽창

-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이 현 주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김선태

팽창

-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

If metal gets hot it expands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이 현 주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김선태

팽창

-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

If metal gets hot it expands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이 현 주

이현주의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을 인준함

202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전종호 (인)

심사위원 김정현 (인)

심사위원 김신영 (인)

Education

- 2021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와 진채화 수료
2019 한성대학교 회화과 졸업

Group Exhibition

- 2020 세화전, 갤러리 이즈, 서울
2019 NOMADISM, 한성대학교 A&D 갤러리, 서울
김나현, 이현주 2인전, 팔레드 서울, 서울
세화전, 갤러리 한옥, 서울
진채의 정수, 초상, 갤러리 이즈, 서울
2018 Melting Point, 성북동 가압장, 서울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다양한 사람들은 개인이란 이름으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다양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 균열이 생기기도 열을 내기도 한다.
 이런 형상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팽창한다.
 현대에 들어 우리나라에 ‘페미니즘’이 알려지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게만 씌어 있던 프레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이야기 되고 있다.
 처음에는 여성 인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며 토론하는 것이 좋은 현상으로 보였다.
 하지만 점점 과열되어 갔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싸우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이것 또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는 한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 사회는 더 심각한 문제를 국면 했다.
 이제 상대를 비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더 이상 비난의 이유도 없었다.
 한 가지 있다면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뿐이었다.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이 생겨났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떤 것이 이 사회를 팽창하게 만들었을까.
 본인은 이러한 현상에 신물을 느꼈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은 자신의 감정을 버리기 위한
 비난으로 가득찬 쓰레기통에 불과했고, 그것을 읽는 것마저 스트레스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비판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나갔다.

나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작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는 인체와 음식이다. 개인 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니 만큼 인체가 소재로 등장할 때 가장 잘 설명되었다. 인체로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모델이 되었고, 매일 스스로를 관찰하게 되었다.

매일 ‘팽창’ 현상에 관한 생각을 하는 본인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창작의 시초는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 경험했던 것이 더 잘 떠오르고 익숙함을 느낀다.

그렇게 본인을 관찰하게 되면서 주제에 대해 겪었던 경험과 생각을 표정으로 읽을 수 있었다.

작품에는 경험과 감정, 인체와 음식을 사용해 작품을 구상했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불행한 순간에 갇혀있다.

풀 수 없는 오해를 받고, 진실이 아닌 편견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며, 반박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불행함을 헤쳐나가기 위해 저항하기도 한다.

작품 속 여성은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편함을 느낀다. 또, 편한 복장으로 앉아 순대 내장을 집어 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녀 머리에는 웨딩 베일이 쓰여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웨딩 베일과 음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소재만으로 많은 이들이 눈치를 못 채는 작은 편견의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제 3 자를 외계인으로 보고 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버린다.

나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치부해버리고 괴롭힌다.

아무 이유 없이, 하지만, 나의 그림 속 무엇들은 나만의 방법으로 편견을 깨고 나오려 한다.

굴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온다.

그림 속 인물들이 모두 비난 가득한 진흙에서 빠져나오면 이 작업들은 마무리될 것이다.

불행한 순간을 담는 다양한 것들.

고정관념과 편견들은 규칙적이거나 획일적이지 않다. 예측할 수 없다. 적어도 21 세기에서는 말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법들이 필요했다.

각 상황이 다르니 그에 맞는 것을 찾아야 했다. 가장 크게 바탕제와 재료 변화를 주었다.

바탕제를 바꾸는 것은 그림의 질감과 두께감 차이를 줄 수 있다.

작품 ‘결혼보다 순대 내장이 더 좋아’ 에서는 감상자를 쳐다보는 모델의 눈빛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눈’ 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투명함을 줄 수 있는 비단을 사용했다.

강렬한 눈빛에 투명함을 더한 눈을 피할 수 있는 감상자는 없을 것이다.

또, ‘닭발’ , ‘선지’ 와 같이 한 가지 소재가 주인공이 되는 그림에서는 비단 보다 튼튼한 종이나 패브릭을 이용했다.

종이와 패브릭은 비단보다 많은 염료와 안료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겁게 색을 올릴 수 있는 점을 사용했다.

두껍게 색을 올려 소재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미술 재료들은 동양화, 서양화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동양화 재료라 명시되어 있는 것만을 쓰는 것은 아니다. 사용하는 바탕제에 별문제 없이 색을 내는 재료들이라면 모두 상관없다.

다양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품에 잘 어울린다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다.

그림들이 가져왔으면 하는 것.

이 세상에는 ‘여성에 대한 편견’ 만이 아닌 여러 차별들이 존재한다.
 여성, 남성, 아이, 노인 이런 범주를 삭제하고, 한 인격으로서 마주하면 각 다른 차별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여성이라고
 모두 성차별과 편견 속에 사는 것은 아니며, 남성이라고 어떠한 차별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한 아니다.
 차별의 경중은 다르겠지만, 어려움 없이 사는 이들 또한 적을 것이다.
 부당함을 당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있다 한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작은 일이 논란이 되고, 그 작은 것이 팽창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두려움으로 인해 외집단과 내집단을 만들어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무관심은 미움보다 비인간적인 감정이며, 무관심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는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순대 내장’, ‘닭발’ 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을 줄이고,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공감하고 배워 나가야한다.
 점점 팽창되어 가는 사회를 무서워 해야하며, 제 3 자를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각 개인의 경험을 존중해주고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한 개인으로서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 되고자 하는 인간상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본인이 바라보는 현시대를 재치있게 비판하며 감상자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를 던질 것이다.
 작품을 감상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현시대를 돌아보고 문제점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작가 본인 전시의 최종 목표다



Peng Chang 2022



LEE HYUN JU

Human Experimentation

Peng Chang 2022

Human Experimentation

32.2×41 (cm)
비단에 채색, 2021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편견과 두려움을 조장한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외 집단과 내 집단을 만들어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게 무관심한 것이다.
무관심은 미움보다 비인간적인 감정이며, 무관심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는다.

더 나아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제3자가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외계인 취급을 하며 잔인한 실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현재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이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괴랄하다.

LEE HYUN JU

Human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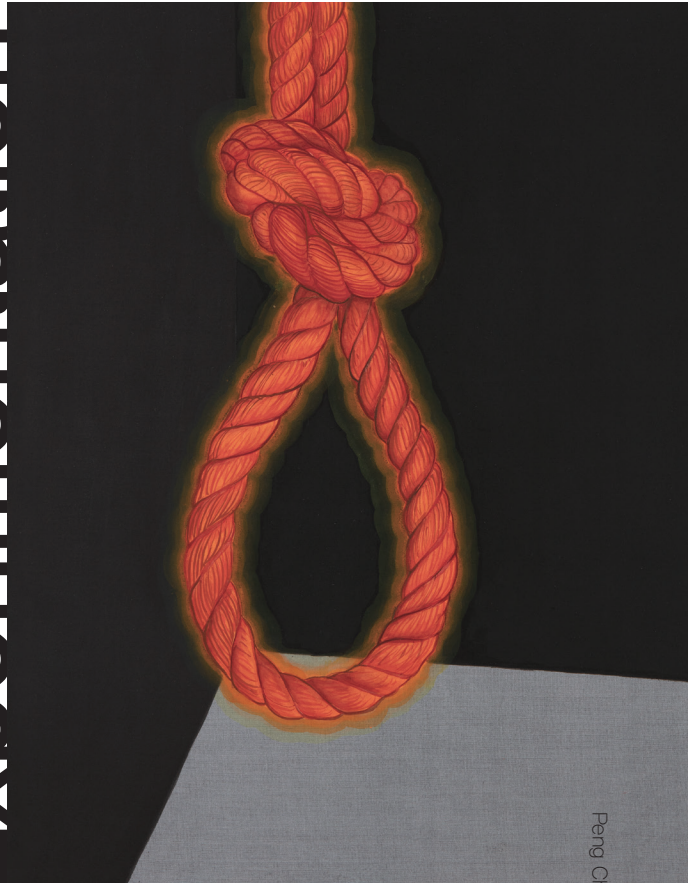
LEE HYUN JU

Peng Chang 2022

Experimentation



LEE HYUN JU



Peng Chang 2022

Peng Chang 2022



Warning

84×102 (cm)
비단에 채색, 2022

A는 소의 피로 만든 선지를 싫어한다. 이유 없이 싫어한다. 선지를 싫어하는 A는 사람인 B를 비난한다. 그냥 비난한다. 비난받은 B는 말한다. “나는 선지도 아닌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야? 나는 네가 이유 없이 싫다고 손가락 질할 수 있는 선지가 아니야.” 하지만 A는 멈추지 않았다. B는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선지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고, 온몸에 피를 칠한 채 마지막 경고를 한다.

LEE HYUN JU

■ 뭐가 문제죠?

78×120 (cm)
비단에 채색, 2020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이 가져야 할 이미지들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는 이 작품 속 여성을 보았을 때, 굳이 저런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할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그것이 편견으로 인해 생긴 의문이라 생각한다. 그런 편견은 현시대로 오면서 비난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위의 이미지만 보이면 앞뒤 상황 이해 없이 비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에서 강요된 생각을 삭제하고 위의 인물이 제3자에게 해가 되는 것이 없다 가정한다면 그저 앉아있는 한 사람의 초상화일 뿐이다. 이 작품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여성과 남성은 조금 더 평등해져 있을 것이고,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서 개인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LEE HYUN JU



LEE HYUN JU

Peng Chang 2022



우아한 닭발
54.8×41(cm)
비단에 채색, 2022

LEE HYUN JU

아마리 판파



이유 없는 비난은 있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예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있는 것들을 존중하며 함께할 것이다.

LEE HYUN JU



LEE HYUN JU

난 결혼보다 순대내장이 더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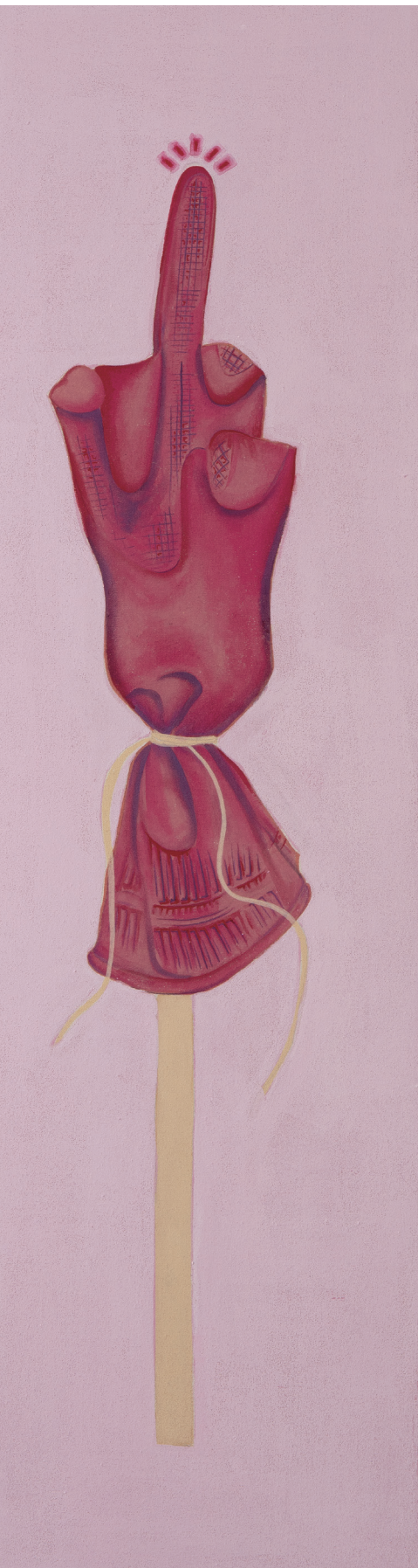
102×126.5 (cm)
비단에 채색, 2021

20대 김 모 씨는 어느 날 부모님 지인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메뉴는 김 모씨가 즐겨 먹는 순대와 내장.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 부모님의 지인분께서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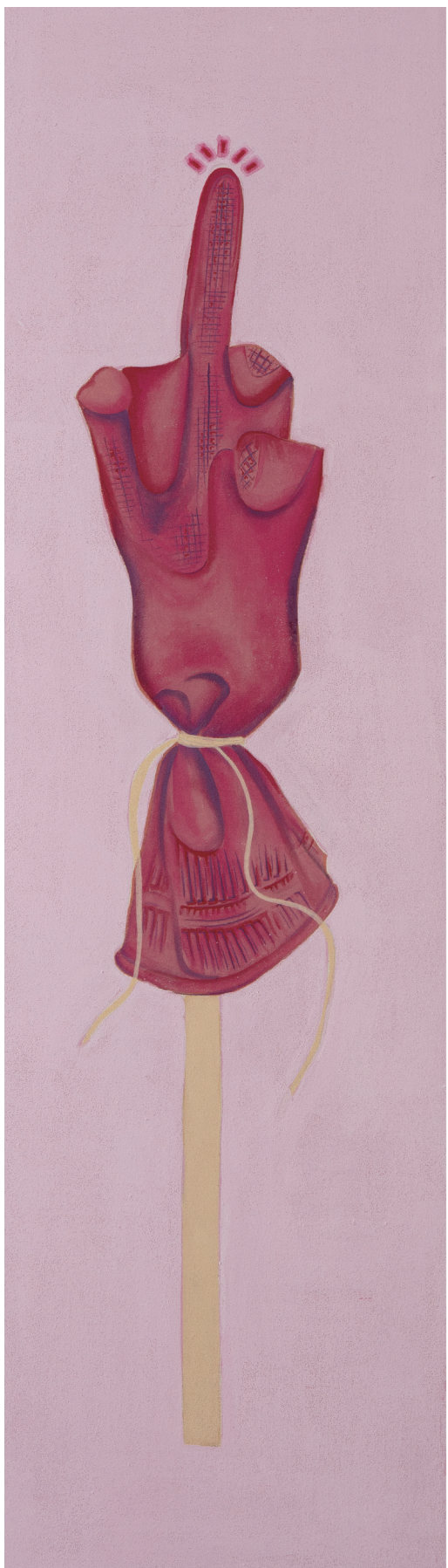
“순대 내장 이 징그러운 거 먹는다고 하면 누가 결혼이나 해주겠어? 하하하”

김모 씨는 순간 그 말의 뜻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를 했을 때는 기분 나쁨 보다 순대 내장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다. 장난스럽게 시작한 한 마디가 얼굴을 볼 수 없는 익명의 공간으로 가면 차별적인 성격을 가진 말 이므로 이유 없는 비난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크다.
우리는 이런 장난스러운 말 한마디의 무거움을 깨달아야 한다.

LEE HYUN JU



LEE HYUN JU



Fuck off

28×102 (cm)
천에 채색, 2022

Peng Chang 2022



LEE HYUN JU



적당히 하시죠

70×38 (cm)
비단에 채색, 2022

우리는 잘못 뱉은 말 여러 마디로 남에게 화를 입히곤 한다. 그럴 때 “으이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지” 라는 말을 듣는다.
그렇다 우리는 지성인이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잘 모르겠으면 입 닫고 가만히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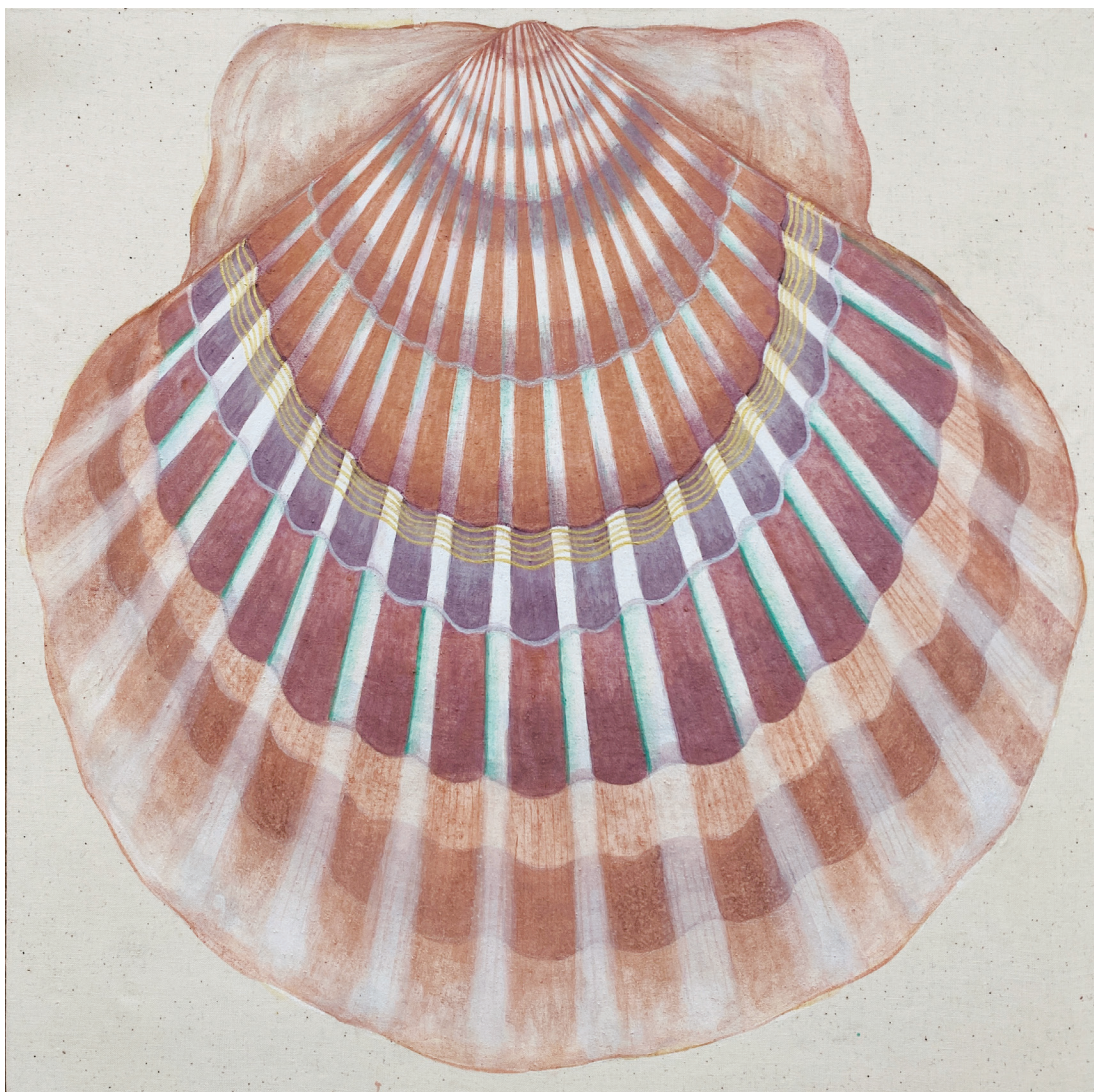
LEE HYUN JU



숨겨진 가리비를 찾아서

36×36 (cm)
천에 채색, 2020

작품 속에는 심심치 않게 가리비들이 등장한다. 가리비는 작가의 작업 방향을 제시하고 동행하며, 또 작품 속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작업과 동행하는 가리비는 색, 형태, 분위기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어쩔 때는 가리비의 형태를 띠지 않기도 한다. 앞으로 작품 속에서도 많은 가리비들이 등장할 예정이며, 감상자들도 가리비의 안내를 따라 작품을 감상하면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숨겨진 가리비를 찾아서

36×36 (cm)
천에 채색, 2021



Peng Chang 2022

LEE HYUN JU